

제9회 서귀포 문학작품 전국공모  
수상작모음



구애영



임철균



이경옥



최진

시조부문\_구애영  
당선작 / 첫알오름 무꽃

소설부문\_임철균  
당선작 / 가시리

시부문\_이경옥  
당선작 / 희구[希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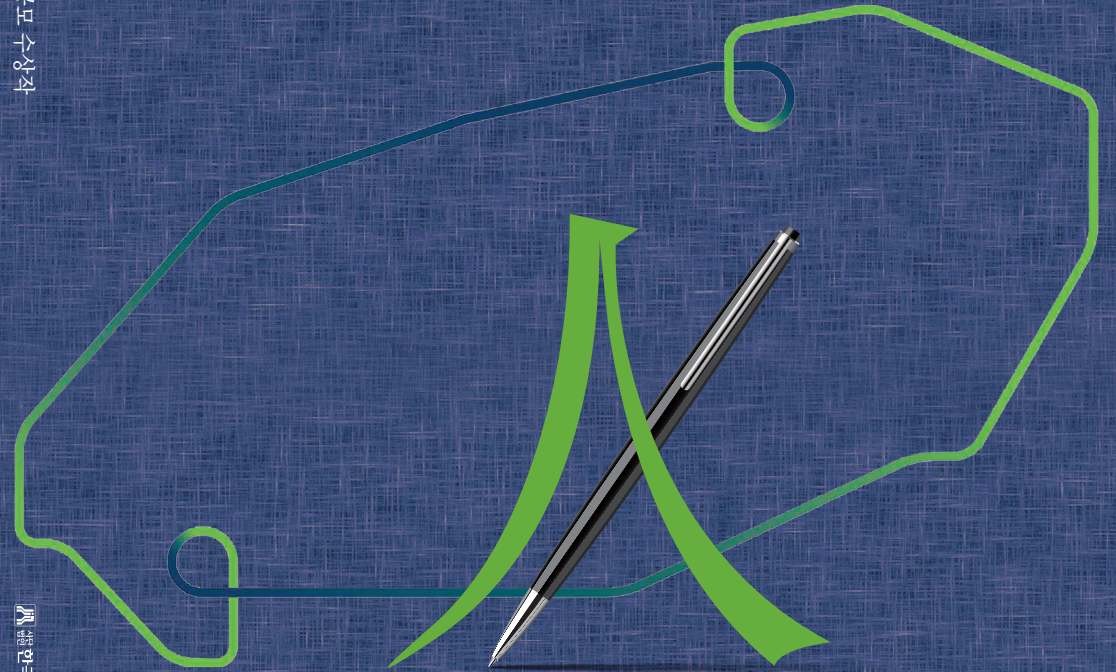
아동문학 부문\_최진  
당선작 / 산방산



제9회 서귀포 문학작품 전국공모 수상작

사단법인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제9회  
서귀포 문학작품  
전국공모 수상작 모음



## 발 간 사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장 **안 정 업**

아홉 번째 서귀포문학작품 수상작 모음집입니다.

해마다 전국 문인들을 대상으로 서귀포문학작품을 공모하여 발표하는 이유는 서귀포의 숨결과 혼, 그리고 향기와 색깔이 고스란히 서귀포 문학작품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 시조, 소설, 수필, 아동문학을 아우르는 전 문학 장르에서 서귀포다운 주옥같은 작품들을 엄선하여 선정된 당선작들을 모았습니다.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는 전국 문학인들의 창작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가치 있고 특색있는 문학인들의 자랑이자, 자긍심을 높여주는 전국 문학 공모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게 사료 됩니다.

특히, 빛나는 영예의 상을 받으신 수상자와 가족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응모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도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공모 처음으로 전체 응모작이 1천 작품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점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문학인께서 더욱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귀포문학작품 공모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오순문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한덕환 문화예술과장님과 문화행정의 노력과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맡아주신 김원욱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에게도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귀포를 사랑하는 전국의 문학인 여러분과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 총평



심사위원장 김원욱 (시인)

지난 11월 8일, 제9회 ‘서귀포문학작품공모전’ 심사가 열렸다. 이번 공모전은 서귀포시에서 주최하고 한국예총서귀포지회에서 주관한 행사로 서귀포의 자연, 역사, 문화, 생활, 사람, 전설, 신화를 주제로 표현한 작품을 대상으로 했다.

전국적으로 많은 작가가 참여하였고, 응모 작품이 1,080편(시 605, 시조 191, 소설 57, 수필 78, 아동문학 149)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 789편에 비해 37%가 증가한 수치다. 또한 응모작의 83.3%(900편)가 도외 작가의 작품일 만큼 이 행사가 널리 알려져 있고, 위상이 단단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심사위원은 장르별로 도내와 도외 문인 1명씩 2명, 5개 부문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 상의 권위에 걸맞은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많은 고민과 시간

이 필요했다. ‘서귀포문학작품상’이 주는 무게와 품격을 지켜내기 위한 고뇌일 터였다.

소설을 필두로 아동문학과 시조 부문의 당선자가 결정되고, 시 부문도 오랜 심의 끝에 당선작을 내놓았다. 그러나 수필 부문은 두 분의 심사위원이 격론을 벌였지만 끝내 당선작을 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선작을 선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치열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리면서, 수상하는 작가들에게도 깊은 신뢰와 축하를 보낸다.

아무튼 ‘서귀포문학작품공모’는 서귀포의 자연·문화·역사 등을 널리 알리고, 문학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이루는 기폭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통해 품격 높은 문화도시인 서귀포시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초일류 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학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말로 된 것이든 글로 적은 것이든 언어예술이면 모두 문학에 포함된다. 아울러 문학의 ‘기록’으로서의 가치와 ‘아카이브(archive)’의 기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서귀포를 문학으로 기록하고, 문화브랜드화 하는 일에 힘을 모아 주었으면 한다. 부디 수상한 작품 하나하나가 서귀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이다.

## 차례



발간사	3
심사 총평	5
<b>시조부문</b>	
당선작 / 첫알오름 무꽃_구애영	9
<b>수필부문</b>	
당선작 /	19
<b>소설부문</b>	
당선작 / 가시리_임철균	23
<b>시부문</b>	
당선작 / 희구[希求]_이경옥	65
<b>아동문학 부문</b>	
당선작 / 산방산_최진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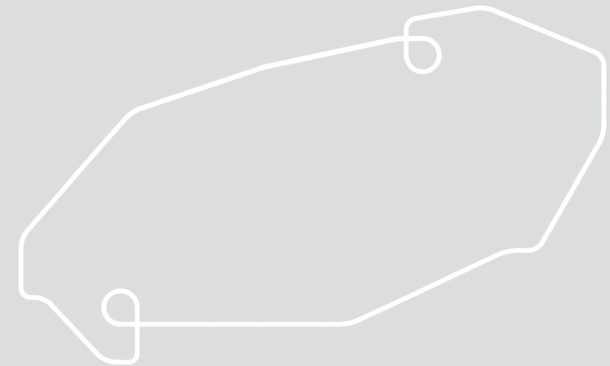


# 時調

시조

당선작 / 첫알오름 무꽃\_구애영

심사위원 : 박현덕, 조영자



## 제9회 서귀포 문학작품 전국공모

### 시조 부문 심사평

11월 초 제주는 바람이 매섭게 불고, 간혹 비가 내리면서 서귀포까지 가는데, 힘든 여정이었다. 25년 전국 서귀포 문학 작품 공모전 본심 심사 예충 사무실에서 ‘번호’로 표기된 작품들을 받았다. 서귀포예충으로부터 ‘서귀포’와 관련 없는 작품들은 제외하라는 당부의 말을 듣고 심사위원들은 긴 윤독의 시간을 가졌다. 서로 작품에 대한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본심에서 몇 편의 작품을 다시 올렸다.

해당 작품들은, 「첫알오름 무꽃」 「겨울, 위미 동백나무 숲」 「서귀포」 「박수기정」 「위미리 동백 숲에서」였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들에 대해서로 숙의과정을 거쳐 25년 전국 서귀포 문학 작품 공모전 시조 당선작으로 「첫알오름 무꽃」으로 결정했다. 수상작을 서귀포예충 사무국에 통보하고, 열람하니 구애영 시인이었다.

첫알오름은 제주 4.3 사건 비극의 장소로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집단 학살하여 암매장한 현장이다. 구애영 시인은 작품 「첫알오름 무꽃」에서 제주 4.3의 과거를 깊이 파고드는 시적 성찰을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흐름의 나열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오롯한

슬픔과 눈물의 세계를 보인다. “기억은 지속되는 것 꽃으로 묻혀도”에서 “꽃길 환히 앞서간 4월의 이름이여 / 뺏속의 꽃샘바람에 몸 비비는 첫알오름”으로 점철되는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상실의 존재라고 노래한다. 더구나 첫째수에서 보인 <바람>은 <아이를 품은 여인>에서 <몸 비비는 첫알오름>과 “미늘에 낚인 문장을 서귀포는 채록한다”로 확장되어 4.3에 대한 깊은 성찰로 기억과 현재를 재현해 시인은 <미늘>을 상징적 표현으로 그 아픔이 가슴속에 남아있음을 드러낸다. <월동 무꽃>과 <백조 일손 까만 흙>은 우리에게 슬픈 노래를 은유적으로 들려준다.

25년 전국 서귀포 문학 작품 공모전 시조부문을 수상한 구애영 시인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정형미학의 시세계를 더 펼쳐 나가길 바란다.

심사위원 : 박현덕, 조영자

| 시조부문 당선작 |

## 첫알오름 무꽃



구애영

- 전남목포출생.  
경기대학교 예술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독서지도학과)석사,  
동대학 한류문화대학원(시조창작학과)석사
- 2010년 시조시학 신인상과 2014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시조 당선으로 작품활동 시작
- 제5회 백수문학상 신인상, 제8회 한국여성시조문학상,  
2024년 시조시학상
- 2022년 아르고문학(시조부문) 창작지원금 선정
- 시조집 『모서리 이미지』, 『호루라기 둥근 소리』  
『종이는 꽃을 피우고』, 『한밤의 네모 상자』

## 첫알오름 무꽃

구 애 영

미역귀 잠 못 이룬 평화를 펼쳐놓고  
만개한 월동 무꽃은 그날의 수화手話인 듯  
바람이 휩쓸고 간 자리 녹비되어 수북하다

편애 없는 별뉘 없어 슬픔이 품은 시간  
아이 품은 여인의 동상, 빈 숲속 서문 같다  
기억은 지속되는 것 꽃으로 묻혀도

물떼새 가족 모아 쇠소깍 건너올 때  
꽃길 환히 앞서간 4월의 이름이여  
뺨속의 꽃샘바람에 몸 비비는 첫알오름

수많은 검정 고무신 고여 있는 오름마다  
아직도 못다 이룬 백조일손\* 까만 흙  
미늘에 낚인 문장을 서귀포는 채록한다

\* 서귀포 대정읍 상모리, 4·3의 묘역.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날 입상 소식을 들었을 때 새연교 물떼새들이 저에게 전해 준 연서 같았습니다.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의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한다네” 작가 프란츠 카프카가 남긴 말을 생각합니다

울봄 첫알오름 길에서 4.3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침에 피운 꽃을 저녁에 보네’ 그 시가 떠올랐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외갓집에 살던 중학교 시절 초꽃이 불로 책을 읽다가 앞머리를 태운 그 기억

지속되었습니다. 꽃으로 문혀도

지금도 연애소설이랑 시집 수필집 희곡, 영화 등 참 많이 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는 내 의식, 내 표현은 늘 허기졌습니다.

꿈 같은 수상 소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신 가족에게 바

칩니다. 목포항 포구에서 태어난 저는 나만의 바다를 그리며 꿈을 그려왔습니다.

뒤늦게 문학의 길로 접어든 저에게 사유하는 시조時調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현 시에그린 박물관장 이신 이지엽 교수님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시클' '시와 길' '한류시조' '열린시학' 문우님들, 명지전문대학교 스승님들 목상42회동창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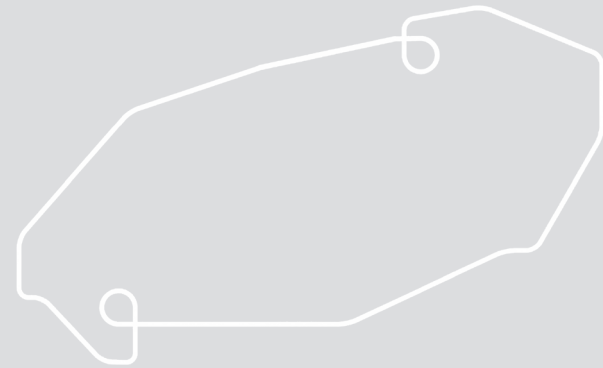
이곳까지 와주신 선생님들 힘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제 곁을 지켜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동생 가족, 고맙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제 부족한 글을 서귀포 푸른 수평선에 띄워주신 심사위원님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사)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서귀포문학작품 심사위원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더 겸허히 공부하여 좋은 작품 쓰겠습니다.

더 자주 제주를 찾아오고 싶습니다.

# 隨筆

심사위원 : 김수오, 진해자



제9회 서귀포 문학작품 전국공모  
수필 부문 심사평

좋은 수필은 삶에서 체득한 자기 철학과 미학을 격조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삶과 역사, 자연과 문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생활 등을 한 편의 수필에 담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을 문학작품으로 만들어 내는 일 또한 작가의 몫이다.

‘서귀포 문학작품공모전’이 올해로 9회를 맞이했다. 이번 응모작품의 수준은 공모전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해 실망스러웠다. 심사위원들은 1차 심사와 2차 심층 토론을 하며 작품을 꼼꼼히 읽고 분석했으나, 아쉽게도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을 만나지 못했다. 하여, <제9회 서귀포문학작품공모전> 수필 부문 당선작은 부득이 내지 않기로 하였다.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은 모두 78편이었다. 그중 공모 주제를 벗어나거나 분량이 미달한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응모작들의 성향은 대체로 비슷했다. 소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부족하여

주제를 제대로 형상화하지 못한 작품과 소설식 문장의 전개로 진실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작품, 연대기식 서술로 인해 미적 울림을 만들지 못하거나 설명 위주의 문장과 추상적 관념을 화려한 문장으로 서술한 작품도 있었다. 정확하고 명료한 문장 쓰기와 단락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작품도 눈에 띄었다. 또한 공모 주제에 관한 자기 체험을 작품화하지 못하고, 기행 과정만 서술하거나 단상만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었다. 이렇듯 대부분의 응모작은 소재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역량이나 공모전이 요구하는 주제를 담아내지 못했다.

심사위원들은 공모전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부담감이 컸다. 심사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그렇다고 구색 갖추기로 수상자를 낼 수는 없었다. 심사 시간을 연장하면서 가작이라도 내려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상작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서귀포문학작품공모전의 장래와 한국수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아픈 결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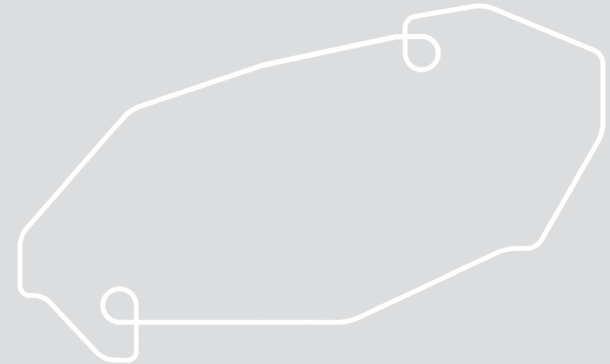
공모전에 응모한 모든 분께 감사와 송구함을 전한다. 더욱 정진하여 다음 기회에 좋은 작품으로 만나길 기대한다.

심사위원 : 김수오, 진해자

# 小說

당선작 / 가시리-\_임철균

심사위원 : 은미희, 박미윤



제9회 서귀포 문학작품 전국공모  
소설 부문 심사평

올해 서귀포문학작품 전국공모전에 소설 부문은 57편이 응모됐다. 서귀포의 자연, 역사, 문화, 생활, 사람, 전설, 신화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열었음에도 주제와 맞지 않는 작품이 꽤 되었다. 완성도는 높으나 주제와 동떨어진 작품들은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필연적이거나 유기적인 연관 없이 서귀포라는 장소만 빌려온 작품들이 많았는데 제주 서귀포의 이야기를 인물과 사건을 통해 치열하게 드러낸 작품들이 부족한 것이 아쉬웠다.

전체적으로 작위적이거나 개연성이 부족한 작품이 많았고 웹소설 형식의 소설도 눈에 많이 띄었다. 심사위원들은 하나의 주제에 톡톡성을 갖고 깊게 들어간 작품들을 눈여겨 보으며 이에 ‘가시리’, ‘빈집’, ‘돛박낭의 기억’을 본심에 올려 숙고해보았다.

‘빈집’은 소설적 구성이 뛰어나고 하나의 주제로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해내는 힘이 돋보였다. 서귀포 군 주둔지에 세워진 마을에서 총탄 사고로 친구를 사망하게 한 인물의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가 그의 장례식과

함께 적절한 구성과 묘사로 그려졌다. 그러나 등장인물이 식상한 면이 있고 전체적으로 기시감을 준다는 게 단점으로 보였다.

‘뚝박당의 기억’은 참신하고 신선하며 읽는 재미를 주는 작품이다. 세상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이해하고 증조할머니가 겪은 4·3의 증언도 악성코드, 버그로 단정 짓던 인물이 증조할머니 아픔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고자 ‘디지털 분향소’를 세우는 과정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그러나 진실의 왜곡 문제에 대한 의미를 확장하기에는 깊이가 부족해 보였다.

‘가시리’는 안정된 문장에 인물이 잘 드러나 있다. 성실한 취재가 엿보였고 제의와 기억 계승으로 이어지는 서술 방식이 돋보였다. 가시리의 환경파괴, 4·3의 아픔을 고려가요를 끌어와 제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낸 것이 장점으로 부각됐다. 이에 심사 위원들은 ‘가시리’를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당선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쉽게 당선되지 못한 분들에게도, 서귀포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고뇌하였을 많은 분에게도 감사 인사와 응원을 보낸다.

심사위원 : 은미희, 박미운

## | 소설 부문 당선작 |

# 가시리



임철균

- 전남광주 출생.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통일반대학원 석사졸업, 박사졸업(문학박사)
- 2005년 가톨릭대학교 문학상 소설 「아까시꽃 피는 섬」 당선
- 2017년 <제1회 박종철문학상> 소설 「코드블루 코드블루」 대상 수상
- 2017년 문학계간지 『창작21』 소설 「동반자」 신인상 수상
- 2017년 한국소설가협회 『2018 신예작가 16인』 소설 「리엔」 선정
- 2018년 서울시 공공미술&문학 프로젝트 문학부문 당선
- 2020년 문학동인지 『물고기 결눈 속에 든』 작품 외 다수
- 2021년 문학계간지 『창작21』 시 「아버지는 대숲에 있다」 외 5편 신인상 수상
- 2025년 문학계간지 『작가연대』 평론 「정수남 「집」에 나타난 육화된 코키토의 분단 극복과 통일 서사」 신인상 수상

## 가시리

정월 그믐날 새벽, 한라산 남쪽 자락 오름이 깊고 푸른 안개에 잠겨 있다. 이 섬에서 안개는 단순히 물방울이 공기에 섞여 흩날리는 자연 현상이 아니다. 오랜 세월 이 땅에 흘린 땀과 피와 눈물 그리고 사라진 이름들과 지워진 목소리들이 응결하여 흰 연기로 피어오르는 것이다. 짙은 안개가 바다의 호흡을 따라 물려왔다가 흩어졌다. 서늘한 숲길을 막아서는 희뿌연 장막이 나의 발걸음을 더디게 했다. 한참 걷다 보니, 안개 속에서 가느다란 불빛들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드러나다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는 그 불빛은 허공에 뜬 듯 위태로웠지만, 꺼지지 않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수록 오히려 불꽃은 더 길게 늘어나며 누군가를 부르는 손짓으로 흔들렸다. 마을에 개 짖는 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타고 숲속까지 들어와 메아리쳤다. 수없이 이어지는 억새들이 바짝 마른 몸뚱이들 비비며, 바람에 흔들리며 서걱서걱 소리를 냈다. 나의 귀에는 그 소리가 아주 오래된 사람들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낮익은 불빛과 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다. 이 길을 다시 걸음으로써, 이제

나는 비로소 과거와 현재의 경계 위에 올라 서 있게 되는 것이다.

\*

서울의 장마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었다. 창문 유리에 빗방울이 맺혀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단조로운 북소리처럼 내 방 안을 울리었다. 학교와 직장 사이에 얻은 낡은 집 자취방 벽지에 온통 습기가 배어 올랐다. 책상 위에 쌓인 종이 뭉치들이 눅눅하게 휘어져 있다. 이리저리 휘갈겨 쓴 문장들의 잉크들이 허무하게 번지며 지워지고 있었다. 책상에 앉아 손가락 사이로 연필을 굴리다 이내 손을 멈추고 고개를 떨궜다. 도대체 내가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학문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내 삶의 불안을 달래는 위안인가. 방 안에 공기는 무겁게 쌓여만 가고 내 호흡은 그 공기의 중압감에 갇혀 더 거칠어져만 갔다.

상념을 깨는 기계음 진동이 울렸다.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제주도가 고향인, 선배였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미 술기운에 얼큰하니 적셔져 있었다. 하지만 출판사를 경영하는 선배의 목소리는 항상 그렇듯 묘하고 단단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비가 와서 한 잔 하고 있는 중이다...서귀포에 <가시리>라는 마을 이름, 그냥 붙은 게 아닐 텐데. 고려가요 ‘가시리’랑 닮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이야. 학문적 근거를 명확하게 댈 수가 없어. 너 박사잖아. 뭐 논문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한 번 알아봐라.”

선배가 막걸리를 넘기는 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 너의 친할머니 고향이 서귀포 쪽이라 하지 않았나? 민수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말이야. 그 피 어디 안 간다.”

선배와 통화를 마치고 할머니를 생각했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가족 앨범 속에서만 존재하며, 제사상 앞에서 혹은 아버지와 가끔의 대화 속에서만 어렴풋이 존재하는 분이다. 내가 아는 것이라곤, 젓먹이 아버지를 안고 시퍼렇게 젊은 과부가 혈혈단신 제주도에서 서울로 왔다는 것뿐.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 라 나에게서는 제사상 영정 사진마저도 생소한 분이시다. 그런 점에서 나는 늘 뿌리 한쪽이 불명확한 사람이라 여겨왔다. 서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나는 나 자신을 서울에 임시 거주자라고 생각했다. 고향이란 무엇인가. 태어난 곳인가, 자라난 곳인가, 아니면 혈통의 피가 이어진 땅인가. 새삼스러운 질문이 나에게 답을 주진 않았지만, 선배의 무심한 한마디가 내 안에 묘한 떨림을 남겼다.

마침내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땡볕 아래 휴가철이 시작되었다.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문화센터에 연차 포함 넉넉하게 한 달여 휴가를 허락받았다. 박사논문을 핑계로 장기간 지방 답사 사유에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여주었다.

티켓을 손에 쥐고 김포공항에 섰다. 대합실이 여름휴가 여행객들로 몹시 붐볐다.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오가는 사람들 속에 나의 짐은 옆 동

네 마실 가듯 단출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회색빛 건물들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구름 밑으로 사라졌다. 하얀 구름바다 위를 비행기가 날고 있었다. 조그만 창으로 햇살이 스며들어 황금빛 강줄기를 만들었다. 나는 어디로, 왜 가는 걸까? 빛의 강물에 실려 바다로 가면, 섬으로 가면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 꼬리를 무는 상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곧 제주공항 도착이라는 기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래, 어쨌든 나는 지금 떠나고 있다. 그리고 떠남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생전 처음 와보는 제주 공항에 도착했다. 생각이 그래서인지 서울의 공기와 완전히 달랐다. 서울의 무미건조한 바람과 달리 짙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공항 앞 야자수들 아래 서 있는 승용차 중에서 예약한 렌트카를 찾아보았다. 차종과 넘버를 확인하고 다가갔다. 중년의 기사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다. 그런데 내 말투를 듣자마자 물었다.

“혼저 가시리 마을로 가쿠과?”

“네. 혼자갑니다.”

나의 대답에 아저씨가 혼잣말인 듯 들으라는 말인 듯 낮게 중얼거렸다.

“히, 서울 사람인 거 같은게. 걸만 보민 모를 거우다. 안으로 들어가 봐야 알주게.”

제주에 오기 전 대략 제주 방언에 대하여 공부를 하였다. 그런 까닭에 무슨 말인지 의미는 알겠는데, 억양과 어휘가 실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말투였다. 하지만 아저씨의 그 말속에는 무심한 듯하면서도 모

하게 경계와 충고가 섞여 있었다. 겉으로만 보고는 제주의 속살을 알 수 없다. 제주의 진면목을 알려면 직접 속으로 들어가서 겪어봐야 안다. 제주에 와서 처음 들은 말이기엔 일단 그 말과 의미를 가슴에 담아두었다. 회사와 자신의 연락처가 적인 명함을 건넨 아저씨가 제주도 관광 지도와 가시리 마을로 가는 길을 대략 구두로 알려주었다. ‘가시리 사무소’로 네비를 찍고 도로에 들어섰다. 한참을 달리노라니 제주도 특유의 돌담이 길 양옆으로 끝없이 이어졌다. 굴밭에는 아직 푸른 열매가 달려 있었고 황금빛 햇살이 그 위에서 반짝였다. 길가에는 하얗게 핀 구절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덧 목적지인 ‘가시리’ 표지판이 보였다. 문득 가슴 속이 저릿하게 울렸다. 단순한 지명에 불과할 수 있으나, 내게는 오래 묻혀 있던 익숙한 뿌리의 이름처럼 다가왔다.

〈가시리 사무소〉 앞에 도착하였다. 근처에 적당한 곳을 찾아 차를 주차하여 놓고 연락할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다. 나이 연로한 아주머니들 몇 명이 좌판을 벌여놓고 작은 장터를 형성하고 있었다. 아주머니들을 지나치는데 한 노파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굴 삼서! 이거 오늘 아침에 딴 거우다. 씹어보민 사각사각 혀.”

굴을 사 가지고 가라 친근하게 권하는 제주도 사투리였다. 마침 목도 마르고 하여 노파의 앞에 앉았다. 눈빛이 한없이 순한 그녀의 손에는 굵은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다. 굴을 봉지에 담아주며 그녀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다 물었다.

“어디서 왔수광?”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할망, 서울서 왔수다.”

그녀가 나의 잘못된 직접 호칭과 어설픈 억양을 곧바로 알아채곤 고개를 갸웃하다 웃었다.

“서울 사람덜은 다 바쁘다 허던디, 뭐 하러 가시리까지 왔수과? 놀러 왔수과, 아님 찾을 사람이라도 있수과?”

그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나를 꺾어 보려는 듯한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제주의, 아니 가시리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왔습니다. 가시리 마을에 대해서 글을 써 보려고요.”

나의 말에 그녀가 잠시 내 얼굴을 뺨히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글로만 남기민 안 되주게. 말은 귀로 듣고, 가슴에 새겨야 험서. 종이에 적는 건 바람 불면 날아가부난.”

그 말에 바로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끼어들었다.

“맞수다, 맞아. 옛날 얘기 허는 거, 들을 귀 없는 사람한테는 돌멩이 던지는 거랑 매한가지라.”

그녀의 말에 다른 이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었다.

“서울 사람덜은 돈 벌러 오지, 우리한테 귀 기울일라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주게.”

“허지만 젊은 양반 눈빛이 달라 보이긴 험네다.”

그녀들의 말에 내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나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귀로 듣고 가슴으로 새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글로 옮기는 이들의 말이 진정 이들의 소리이며 그것을 내가 그 본 의미 그대로 정확히 옮길 수 있을까. 나의 글이 칼이 되지 않고, 타인의 상처를 덧내지 않을 수 있을까. 대화를 하다 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다.

굴 조금 샀을 뿐인데 그녀들은 나를 쉽사리 놓아주지 않았다. 차 가져왔느냐, 어디다 주차했느냐, 거기는 안된다 저쪽으로 옮겨 놓아라, 어디에 목을 거냐 등등. 그러다 즉석에서 한 노파의 조카사위가 한다는 펜션이 나의 목을 곳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나에게 굴을 판 노파가 잠깐 기다리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도저히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사투리의 대화였다. 전화를 끊더니 지금 전화 건 사람은 <가시리마을 4·3 길 센터> 자원봉사자라 했다. 자기들보다 아래 연배인데, 가시리는 물론 제주 전체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 했다.

렌트카를 가르쳐 준 곳에 옮기고 다시 노파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 햇볕에 시커멓게 그슬린 얼굴의 노인이 노파들 앞에 서 있었다. 작은 키에 어깨는 약간 굽었지만 첫인상과 걸음걸이가 매우 강인하고 탄탄했다.

“서울에서 왔수과?”

“네. 역사 공부를 하는 아직 학생입니다. 가시리 마을이 궁금해서 찾아 왔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이내 잔잔히 미소 지었다.

“놀러 온 게 아니고 공부하러 왔다니, 잘 왔저게. 헌디, 이 마을은 글로

만 배우는 게 아니우다게. 걸어봐야 알주게. 숨 쉬어봐야 알주게.”

그가 나를 데리고 자신이 자원봉사를 하는 센터로 데려갔다. 노인은 자신의 이름을 안덕수라 했다. 가시리를 알려면 제일 먼저 4·3길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2층 건물의 1층에는 마을의 지도와 여러 장의 흑백사진들이 벽에 붙어있었다. 흑백사진들 속에는 익히 알고 있는 4·3의 모습들이 담겨있었다. 사진들을 보노라니 새삼 마음이 무거웠다. 그리고 노인의 말을 생각했다. 걸어야 알 수 있다. 숨을 쉬어야 안다.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경계이자 시험이었다. 어디선가 닭이 울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그 소리들은 나를 잠시 안심시키다가 곧 긴장하게 만들었다. 나는 외지인이다. 이들의 고통과 기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자다.

노인이 앞장서서 좁은 길을 걸었다. 돌담 사이로 잡풀들 자란 옛길이 이어졌다. 그가 흥얼거리듯 중얼거렸다.

“고야동산, 구석물당, 마두릿동산, 종서물, 새가름…”

나는 알아듣기 어려운 노인의 말들을 급히 수첩에 받아 적었다. 그러나 금세 글자는 흩어지고 소리만 남았다. 노인은 내가 수첩에 필기하는 것을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적지 말앙, 먼저 들어. 말은 귀로 들어야 살앙난다.”

노인이 걷던 걸음을 멈추고 돌담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 돌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를 품고 있주게. 그냥 돌이 아니우다. 조상 숨이 들러붙은 돌털이라.”

나는 그 말에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그래, 나는 글로만 이 돌들을 옮기지 말자. 일단은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자. 고야동산 자락에 이르렀다. 작은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다. 4·3 당시 마을을 지키기 위해 보초를 섰던 곳이라 했다. 발걸음을 옮겨 ‘가시리 설오름 청주한씨 방묘’ 앞에 섰다. 600여 년 전 지금의 가시마을을 설촌한 것으로 알려진 고려말 충신 한천과 그 아들 부부의 묘라 했다. 지금은 ‘가시리(加時里)’라 하는데, 애초에는 가시오름에 가시나무가 많아서 ‘가시오름마을’이라 명칭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제주 천년의 역사에서, 그 이전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넓은 야초지에 가축들을 방목하며 노래를 부르던 곳이라 했다. 그래서 가시리는 탐라국은 물론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까지 목축이 흥하다고 했다. 구석물당에 이르렀다. 뜨거운 곳에서 갑자기 서늘한 곳으로 들어선 듯한 급작스러운 기분이었다. 평평한 곳 한쪽에 자연석으로 둘러싸인 움푹한 돌제단이 있었다. 그런데 그 둘레에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중압감이 흘렀다. 햇빛이 숲 사이로 들어오고 있지만 서늘함 가득한 이곳을 뚫지는 못하는 듯했다. 타다 만 초들이 몇 개 놓여있었다. 그 제단의 공간은 이승과 저승, 현재와 과거를 잇는 경계선처럼 보였다. 어쨌든 주변 분위기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묘한 곳이었다. ‘구석물 열뇌화주 삼천백메포와 일뤼당신’을 모시는 곳이라 했다. 섬의 평화, 마을의 번영과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 장소라 했다. 원래 날을 정해 제를 지내는데 요즘은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어 삼 일에 한 번꼴로 제녀(祭女)가 간략히 제를 지내고 있다고

했다. 한천의 후손들을 위해 면암 최익현 선생이 세운 비석을 지났다. 마 두릿동산을 지나, 토벌대의 학살로 이제는 서귀포의 지명에서 ‘잃어버린 마을’이 된 ‘종서물·새가름’을 만났다. 모녀의 슬픈 사연이 담긴 가시천을 지나, 갑선이 오름과 ‘흙붉은 동산’이라 부르는 달랭이모루까지 보았다. 꽤 오랜 시간 길을 걸었음에도 노인은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길의 끝이자 처음의 자리에 섰다. 노인이 주머니를 뒤적거리 무언가를 꺼내더니 내 손에 쥐어주었다. 커다란 구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바닷가에서 파도에 닳고 닳은 듯 매끄럽고 동그란 색깔이 있는 돌멩이였다. 노인이 그것을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어느 집 아이가 잃어버렸던 거. 이제는 누군지 이름 몰라. 그래도 잊으면 안 되주게.”

공부하는 사람이니 특별히 준다고 했다. 구슬 모양의 동그란 돌멩이를 건네는 그의 손이 매우 무겁게 느껴졌다. ‘잃어버린 이름’과 ‘기약 없는 사라짐’이 가시리 마을 지도에 겹쳐 새겨졌다.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홀로 다시 구석물당을 찾았다. 안덕수 노인과 들렸던 곳 중 이상하게 계속 마음속에서 맴도는 장소였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따가운 햇볕이 비추는 한여름 대낮인데도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맴도는 곳이었다.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는 제단이 있었고 그 앞에 넓고 평평한 마당이 있었다. 구석물당 주위에 동백나무, 팽나

무, 보리수 등이 제법 울창했다. 하지만 대나무를 제외하고는 곳곳하게 자란 나무가 드물었다. 하나같이 갈라지고 예구부러진 모습의 나무들이었다. 어떤 나무는 자연석을 토양 삼아 굵은 뿌리를 겉으로 드러내며 내린 채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혼자서 그 서늘한 기운 속에 서 있는데 사람들 소리가 두런두런 들렸다. 부녀자 세 사람이 올라왔다.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리고 제물 바구니를 든 모습이었다. 맨 앞에 색깔이 다른 치마와 저고리를 입은 나이 지긋한 중년 여인이 섰고, 그 뒤로 젊은 여인과 노파가 따랐다. 앞장선 중년의 여인이 제단 근처에 홀로 서 있는 나를 힐끗 보더니 낮게 말했다.

“혼저 옴떼짱?”(오셨습니까?)

친근한 의미의 말인데도 그녀의 단호한 어투 때문에, 얼떨결에 네 하며 허리를 굽혔다. 그러자 나를 전혀 개의치 않고 그녀가 제단 앞으로 갔다. 중년 여인이 젊은 여인에게 말했다.

“혼저 준비헛서.”(어서 준비합시다.)

젊은 여인이 고개를 꾸벅하며 촛불을 켜다. 노파가 젊은 여인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불이 꺼지면 안 되주게. 꺼지면 조상 숨이 끊어져버네다.”

들고 온 바구니 속에서 제물들을 꺼냈다. 마른 멸치, 씻은 쌀, 둥근 무 조각, 굽지 않은 떡. 하나같이 소박한 것들이었다.

노파가 시퍼런 동백잎들이 매달린 빗자루를 쥐고 제단 앞 돌바닥을 쓸

었다.

“사각, 사각… 부정 나가라, 부정 나가라.”

빗자루질 소리를 흉내 내며 말하는 그 소리는 단지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바람과 합쳐져 제단 주위에 공기가 정화되는 듯했다.

그런 그들에게 나는 경계 밖에 세워진 사람이었다. 그들에게 떨어져 숨을 죽였다. 떠나지 않고 자신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나에게 제례 준비를 마친 중년의 여자가 다가와 낮게 물었다.

“어제 덕수 하르방이 말하던 학생이라?”

“네.”

“그럼 오늘 본 거, 함부로 적지는 마시오. 적는다고 사는 게 아니니.”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한편 칼날처럼 단호했다. 나 역시 짧은 대답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제의가 시작되었다. 부녀자들이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제물을 차례로 올렸다. 마른 멸치, 쌀, 무, 떡. 하나씩 제단에 올리며 여인이 주문을 외웠다.

“아방, 어멍, 말굽바람 바당바람 피바람에 사라져불은 영혼덜아, 오소…쉬엄하게.”

아버지·어머니로 상징되는 선조들과 제주 역사의 넋들을 부르고 있었다. 그들의 넋을 불러 쉬었다 가라는 위무의 주문이었다. 여인이 영혼들을 부르며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다. 그녀의 치

맛자락 때문인지 촛불들이 흔들렸다. 감히 범접하기 힘든 공간의 서늘한 바람이 그녀의 울림을 숲속으로 실어 날랐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낮은 억양 속 바람의 주문에서 죽은 자들이 걸어 나오는 듯했다. 나는 기록자의 손 대신 귀를 열어 가슴에 적기 시작했다.

제의가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생각했다. 이 제의는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반복되는 서사의 다른 장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죽은 자와 산 자, 떠남과 남음은 대립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어짐이었다.

나지막하던 중년 여인의 목소리가 격렬해지기 시작했다.

“영혼덜아, 허망하게 가지 말앙 오소! 허벅지게 외롭지 말앙, 다 같이 오소!”

그녀의 치맛자락이 바람에 크게 휘날렸다. 촛불이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햇불처럼 타올랐다. 그녀의 주문과 몸짓에 따라 촛불이 더 크게 흔들렸다. 제단 주변에 ‘폭낭’이라 부르며 신성시하는 팽나무 가지와 잎들이 부르르 떠는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도 모르게 숨이 멈추어졌다. 그녀의 몸짓 속에서 수십, 수백 년을 넘어 전해지는 어떤 집단의 소리와 환영이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제의가 끝났다. 제단 위에 촛불과 향 내음만 남았다. 제단의 제물들을 챙긴 그들이 내려가는데, 노파가 나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학생, 글은 바람에 날아가도 소리는 가슴에 남주게. 잘 보고 듣고 가라우.”

해가 서편으로 기울어 갈 무렵, 안덕수 노인이 자신이 홀로 사는 곳이라며 가르쳐준 집을 찾아갔다. 마침 노인이 집에 있었다. 마당 한 편에서 낫과 칼을 가지고 무언가를 깎고 있었다.

“구석물당 다녀왔시냐. 학생은 어떻 적젠 햄서?”

어떻게 적을 것이냐는 노인의 말에 내가 수첩을 꺼내다 멈췄다.

“못 적었습니다.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말에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마의 땀을 훔쳤다.

“말은 칼날이우다. 누가 쥐냐에 따라 어디에 베이는지 모른다. 글로 남긴다는 건, 칼을 쥐는 거랑 같주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뼈에 스미듯 분명했다. 노인은 제주의 상징인 수백 년 된 신성한 녹나무로 나무 부적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마루에 걸터앉아 나는 노인의 말을 수첩에 적었다. 그리고 노인을 한참 바라보다 이내 덮었다. 하던 일을 정리한 노인이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구석물당 자리는 사람 마음 밑자리 같주게. 밑자리를 파헤치면 집은 새로 지어도 마음은 허물어진다.”

구석물당은 제주 사람들의 근본 의식의 터인지라 그곳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노인의 말이었다. 노인의 말에서 제사상에서 보았던 할머니의 영정 사진이 떠올랐다. 제주도에서 돌아가셨다는 할아버지는 사진 한 장도 없었다. 할머니의 기억에 의존해 그린 그림 사진이 전부였다. 아

버지의 기억과 앨범 속에서만 존재하는 낯선 여인. 그림으로만 존재하는 할아버지. 그들의 피가 내 핏속에 아직도 흐르고 있을까. 어쩌면 내가 여기에 온 것이 휴식이나 논문 구상 때문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얼핏 스쳤다.

서울의 선배와 통화를 했다. 제주에 있다고 하니 함께 가지 그랬느냐며 아쉬워했다. 얼마나 있을거냐고 해서 글썽 생각보다 좀 더 있다 가려 한다고 했다. 나의 말에 선배가, 자신의 오랜 친구가 서귀포 시민단체 간부이니 연락하라며 연락처를 주었다.

반갑게 맞이해 준 선배의 친구가 항구에 지인의 훗집으로 데려가 나를 대접해 주었다. 요즘 제주에 외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했다. 제주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변했다고 했다. 제주 사람인데도 제주도 사투리를 쓰고 알아듣는 사람이 30% 남짓이라고 했다. 최근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 일대에 ‘골프장 건설’과 ‘풍력발전단지’ 문제를 두고 주민들이 둘로 갈라졌다고 했다. 어떤 형태로든 포함될 목장 부지가 주민들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이라 했다. 내일 시청에서 공청회가 열리니 한번 참석해 보라 권하였다.

이튿날, 서귀포 시청 대회의실. 골프장 건설과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놓고 공청회가 열렸다. 회의실은 이미 뜨거운 숨결로 가득했다. 긴 책상 위에는 두꺼운 자료집과 보상 관련 예산표가 널려있었다. 하지만 보상의 숫자들이 사람들의 분노와 두려움과 걱정들을 잠재우지 못하는 듯했다.

젊은 공무원이 PPT를 띄운 화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 서귀포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들 잘 하시겠지만 골프장이든 풍력발전단지이든 서귀포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중년 사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골프장은 절대 반대이다. 골프장 허민 넓은 땅이 필요허주게. 현디 그 땅이 어딤시냐, 목장 허물어볼 거 아니우파. 게다가 들으난, 우리 가시리 구석물당까지 파헤친다 카민, 그계 말이 안되주게. 또 골프장 허민 농약을 허벽지게 뿌릴 거 아녀. 그 물들이 다 어디로 스며들 거우파? 이견 돈 몇 푼 받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우다.”

그러자 다른 편에서 연배의 주민이 일어나 바로 반박을 했다. 대부분 나이 든 토박이 주민들이 모여서인지 공무원의 표준 어투와 달리 제주도 사투리가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골프장 허민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쿠과? 다 돈 많은 사람덜 아니우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허는 말인디, 목장 있은들 돈이 얼마 됩니까. 또 구석물당 허는 거, 노인네덜 가서 굿판 벌이는 데 아니우파. 그런 미신 믿는 사람이 요새 얼마나 됩디까. 다들 생각 좀 해봅서. 골프장 생기민 거기 취직하는 사람덜 있주게, 또 돈 많은 관광객 상대로 장사허는 사람덜, 고급펜션 허는 사람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먹고사는

거 아니우파. 근디 풍력발전단지 조성허민 솔직히 돈 몇 푼밖에 더 들어옵디까? 내 말 틀렸수과?

사내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며 각자의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목소리들이 얽히며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누군가는 손바닥으로 책상을 세차게 내리쳤고, 누군가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다. 종이가 바닥에 흩날렸고, 마이크가 삐걱거렸다.

소란 속에서 한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수다! 조상 숨이 깃든 자린디, 허물어볼민 다 끝장이우다.”

노파의 말을 받은 다른 주민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그 조상 숨만 붙잡고 살 거라면, 우리 자식덜 세대는 다 육지로 떠나볼게! 그럼 남는 건 돌하르방뿐일 거우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목소리와 목소리가 서로를 짓눌렀다. 나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글로 이 싸움을 기록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글은 사실을 담는 동시에 누군가의 상처를 덧내는 칼이 될 수도 있다. 나는 펜을 들려다 망설였다. 그때 회의장 앞자리에 앉아 있던 안덕수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 회의장 전체를 둘러보았다. 커다란 창문에서 들어 온 금빛 햇살이 그의 새까만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다들 들어봅써. 우리는 예부터 바람길 따라 살아왔주게.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설문대할망 후손 아니우파. 내 말은, 골프장 만든다고

무조건 반대만 하자는 건 아니었다. 헌디, 그 골프장을 굳이 역사가 깃든 목장을 파헤쳐서 지어야 하겠수과? 특히나 우리 혼이 깃든 당집만은 그대로 뒀야 협주계. 그거 허물어볼민 우리 조상 숨이 끊어져볼 거 아니 우짜. 그러면 후손덜한테 두고두고 욱 얻어먹을 거우다.”

안덕수 노인의 말이 끝나자 잠시 고요가 찾아왔다. 그러나 곧 다시 목소리들이 부딪쳤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논쟁은 단순한 개발과 전통의 싸움이 아니었다. 살아남으려는 몸부림과 잊히지 않으려는 기억의 충돌이었다. 단순히 찬반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삶과 오래된 믿음의 무게가 충돌하는 장면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말을 펜으로 옮겨적지 않고 있었다. 오직 귀로 들리는 그들의 말을 가슴에 차곡차곡 옮길 뿐이었다.

선배의 친구가 제주 바다낚시의 맛을 보여주겠다며 작은 배를 한 척 빌렸다. 낚시 장비들을 챙겨 대여한 배로 가는 길에 해녀들을 보았다. 언젠가 아버지는,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물질을 해서 성격이 아주 강인하다고 했다. 선배의 친구에게 그 말을 했더니 원래 제주에 바람과 돌과 해녀가 많아 삼다도라 부른다고 웃었다.

낚시를 마치고 꽤 많이 잡은 고기들을 펜션 사장님에게 조리해달라 부탁하였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펜션 주변을 산책하였다. 마을 게시판이 보였다. ‘가시리 골프장 반대를 위한 주민 회의와 김순심 할머니의 4·3 증언’에 관한 안내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었다. 개최 날짜는 이

틀 후였다. 포스터 아래에 적힌 여러 이름 중에 안덕수 노인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다음날은 하루 종일 펜션에 머물렀다. 노트북을 꺼내어 작업 중인 논문 파일을 열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서인지 논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반나절을 그렇게 궁뎥거리다 낮잠을 잔 후 서귀포시청 홈페이지를 열었다. 제주의 역사, 서귀포의 역사, 가시리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내가 정작 알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하여 ‘제주 4·3 평화재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4·3 당시 희생자 상황과 초토화된 마을들을 검색했다. 아버지에게 간혹 토막토막 들은 할머니의 말과 안덕수 노인의 말을 겹쳐보았다. 할머니의 고향이 어디인지 대략 짐작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마을’, ‘사라진 마을’에 할머니의 영정 사진이 아리게 곱혔다.

국립제주박물관을 찾았다.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제주도의 주요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관들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어렴풋이 생각하고 찾고자 하는 유물들이 딱히 보이지 않았다. 제주도에 있는 공립 도서관 세 곳, 제주도서관·한라도서관·탐라도서관을 탐방했다. 고려후 기사와 겹치는 제주의 역사 관련 자료들을 찾아 펼쳤다. 학술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낸 「오키나와 구스쿠의 축조 배경」 논문과 도서관에서 찾은 고문헌들을 비교해 보았다.

〈가시리마을 4·3길 센터〉 안에 긴 갈색 책상과 의자들이 뻑뻑하게 놓

였다. 가시마을 주민들이 중심이었고 청년단체 회원들도 함께 참석하였다. 정면 벽에 ‘미래의 역사는 기억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문장이 검은색 바탕의 천에 굵은 고딕 흰 글씨로 비장하게 적혀있었다.

안덕수 노인이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다 나를 보고 활짝 미소 지었다. 노인이 나의 손을 이끌고 센터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노인이 만들어 준 자리를 사양하고 뒤편에 서 있겠노라 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묵묵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햇볕에 그을린 손등, 굵은 주름, 침묵의 무게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주민회의가 시작되었다. 골프장 건설에 관한 가시리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대체로 통일되어 있었다. 북제주와 비교하여 낙후된 섬의 남쪽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상대적으로 자연 파괴가 적고, 목장 일부를 수용하는 대가로 해마다 마을 발전 기금이 유입되는 풍력발전단지에 긍정적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었다.

다음으로 ‘4·3 증언’이 이어졌다.

첫 번째 증언자는 작은 체구의 김순심이라는 이름의 노파였다. 부축을 받으며 앞으로 나온 그녀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했지만, 마이크를 잡은 두 손은 단단했다.

“그해 봄, 마을이 텅 비어붙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센터 안 구석구석을 울렸다.

“오름 사이로 연기만 솟아올르고, 집털은 모조리 불타 사라져붙었주

게. 그 속에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영식아, 순덕아...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 4·3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본 마을이 북촌리와 가시리라고 했다. 북촌리에서는 한 날에 400여 명이 죽고, 가시리 마을 희생자도 500여 명에 달한다고 했다. 특히 가시리 마을의 경우, 계엄령 선포 전부터 이미 마을을 잔혹하게 초토화하였다고 했다. 객석에서 누군가 훌쩍였다. 노파는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말을 계속 이어갔다.

“불러야 했습니다. 불러야 안 사라져부난. 이름 부르민, 그 사람덜이 아직 여기 살아 있단 거우다.”

노파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끊겼다. 눈가가 붉게 젖었고,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침묵에 잠겼다.

두 번째 증언자 또한 꽤 연로한 노파였다. 그녀는 한쪽 팔이 없었다.

“나는 그때 어렸수다. 불길에 집이 다 타버리고, 엄마는 나를 품고 도망쳐주게. ‘가시천’에 숨었는데, 군인덜이 총을 들이밀며 말했수다. ‘이 빨갱이년들!’ 허난 엄마는 고개를 저었수다. 그 자리서 총이 울려붙었주게. 나도 엄마 손을 붙잡은 채 쓰러졌수다.”

언젠가 읽은 현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이 떠올랐다. 그와 관련하여 읽은 논문 중에 ‘식객집 문학’을 생각했다. “요 집도 식계, 저 집도 식계, 먼 식계집인데.”(이 집도 제사, 저 집도 제사, 모두 제삿집이네)라는, 그때는 한 발 떨어져서 읽었던 것들이 지금 나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세 번째 증언자는 아버지 또래의 남자였다. 그가 매우 연로한 노파를 휠체어에 태우고 앞으로 나왔다.

“저는 오늘, 제 어멍(어머니) 이야기를 대신 전하려고 왔습니다. 어멍이 기운이 없어 직접 말씀은 못하시우다. 그 새벽, 아버지가 군인덜한테 끌려가고, 집은 불타 사라져버렸수다. 저는 그때 젓먹이라 솔직히 기억은 없수다. 허지만 지금도 어멍은 그날이 되면 아방(아버지) 이름을 불렀수다. 그 뒤로 나는 공무원도 몬 험수다, 해외도 몬 나가명 살아왔수다.”

부모의 비극과 연좌제의 피해를 이어가는 남자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증언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무거운 침묵 속에 울음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다.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고, 누군가는 소리 없이 흐느꼈다. 어떤 청년은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그러나 글자를 새기려는 생각과 달리 손이 멈췄다. 이 목소리들을 과연 내가 다 글로 옮길 수 있는가. 글은 차갑고 잉크는 건조하다. 기록은 건조하며 직선적이다. 이 뜨겁게 떨리는 울림을, 이름들의 비극을 잉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또 잊힌다. 그러할 때 망각은 또 하나의 폭력일 수 있다. 글은 칼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방패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글은, 기록은 늘 경계 위에 있다. 펜을 쥐는 나의 손이 머뭇거렸다.

마지막으로 내 또래의 젊은 여성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가 또렷한 목

소리로 말했다.

“저는 박성옥 희생자의 손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할아버지를 이야기하며 울기 위해서도, 분노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글로 남기든, 노래로 남기든, 그림으로 남기든, 그 어떤 형태로든 이름들의 역사는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센터 안이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다 올바르게 바라보고 이끌고자 하는 침묵이었다.

주민회의를 정리하며 안덕수 노인이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서로 바라보명 이름 한 번 불러보게마썸.”

사람들이 노인의 갑작스러운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노인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골프장 있어야 돈 번다 허는 사람덜, 집값 올라간다 허는 사람덜, 또 갑마장 구석물당 지키자고 그나마 풍력발전단지 동의허는 사람덜. 이름 불러보게마썸. 서로 이름 부르민, 그 이름 속에서 이름이 다시 살아나주게. 흥분이 좀 가라앉을 거 아니우파. 우리 누굽니까. 오늘 다들 들은 것처럼, 그 참혹한 이름덜 뿌리에서 나온 같은 사람들이우다게.”

노인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상대를 적어 아닌 이웃으로 다시 세우려는 시도를 멈추지 말자는 것이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 그것은 서로를 자신의 한 부분으로 에워 안고 살아가는 이곳 사

람들 삶의 방식이요 뿌리 깊은 의식이었다.

주민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센터 입구에 걸린 현수막 문구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 기억하는 자가 미래의 길을 만든다

나는 오래도록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길은 누군가의 발걸음이 반복되어야 비로소 드러난다. 기억 역시 불리고 또 불려야 남는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센터 앞마당에서 담배를 한 대 물었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다. 구석물당에서 만난 중년 여자였다.

“학생, 오늘 들은 말들은 글로만 묶어두지 마시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런 나를 잠시 바라보다 다시 낮게 말을 이었다.

“우린 우리가 지킨다. 하지만, 학생도 이제 본 사람이우다. 보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주게. 마음을 어디다 둘 건지, 그건 학생 몫이우다.”

나에게 말하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언어는 단순한 기록의 도구가 아니다. 말이 집을 짓고 이름이 길을 만든다. 불편한 기억이 단지 무거운 짐은 아니다. 살아남은 자가 지고 가야 할 삶의 한 방편이며 과거와의 약속이다.

가시리 마을이 새벽부터 분주했다. 원래 당제(堂祭)는 정월 그믐, 6월 7일과 8일, 11월 7일과 8일이다. 하지만 골프장이 조성되면 이 모든 것이 허망이 될 것이었다. 그에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염원을 모아 제주

도의 평화와, 서귀포의 번영과, 목장과 구석물당의 존속을 바라는 별도의 당제를 여는 것이었다.

부녀자들이 우물가로 모여 물을 길었다. 두레박이 철컹철컹 소리를 내며 물을 끌어올렸다.

“부정 들지 말앙, 깨끗하게 허자.”

서로를 다독이며 손을 씻고, 신성한 동백잎 가지 묶음으로 서로의 얼굴과 몸 여기저기를 훑어내렸다. 젊은이들은 돌담길을 쓸고, 제단으로 향하는 길을 정리했다. 마당에서는 장작불 커다란 시루에 떡을 찌는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고소한 향기가 새벽 공기에 스며들었다. 어른들 주위에 일찍 잠이 깬 아이들이 모여서 장난을 치며 즐거워했다. 어떤 녀석이 돌담 위에 올라가 어른들을 흉내 내며 까르르 웃었다.

“아방, 어멍, 오시라!”

한 녀석이 흉내를 내자 다른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따라 불렀다. 제례 떡을 훔쳐 먹다 들킨 아이가 귀를 잡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조차 마을을 살아 있게 하는 숨결이었다. 마을 사람들 속에 서 있던 내가 망설이다가 제법 무거워 보이는 제물 바구니 하나를 들어 올렸다. 바구니 안에는 마른 멸치, 쌀, 무, 떡 등이 잔뜩 쟁여져 있었다. 옆에 나이 든 노파가 그런 나를 결눈질로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 혼저들 가게마씀.”(자, 다들 갑시다!)

누군가의 말에 따라 사람들의 행렬이 움직였다. 부녀자들의 치맛자락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서걱서걱 일었다. 돌담 사이로 역새가 흔들리

며 사람들의 길을 열었다.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의 발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구석물당 앞에 이르렀다. 촛불이 하나들 켜졌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숲 바람이 서늘하게 불었다. 하지만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불빛들이 가늘게 흔들리며 사람들의 눈빛과 겹쳤다. 제단 바로 앞에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은 부녀자들이 섰다. 각자 바구니에서 마른 멸치, 막 씻은 쌀알, 단단히 썬 무 조각, 김이 아직 남아 있는 떡들을 꺼냈다. 평소라면 그저 소박한 음식일 뿐이었지만, 이 순간 그것들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끈이었다. 돌 제단 위에 제물들이 차려지고 향이 피어올랐다. 당제를 주관하는 중년 여인이 제단 맨 앞에 섰다. 단색의 부녀자들과 달리 이번에 그녀의 복장은 화려한 색이 섞인 무녀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제주 무속에서 ‘이명걸이’라 불리는 붉은 머리띠가 질끈 동여매어 있었다. 부녀자들이 그녀의 뒤로 물러났다. 그녀가 제단 앞에 서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그녀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낮고 굵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방, 어명, 말굽바람 바당바람 피바람에 사라져불은 영혼덜아, 오소…쉬영허게.”

뒤이어 여인이 구체적인 이름들을 불렀다.

“영식아, 영식이 아방아, 순실아, 귀례어멈… 다들 오소. 밥상 차려졌주게.”

여인의 호명이 길어지면서 제단의 촛불이 크게 일렁거렸다. 나는 가만

히 생각하였다. 여인의 호명은 단순한 이름 부름이 아니었다. 떠난 자와 남은 자가 서로의 등을 어루만지는 주문이었다. 바람과 돌담과 부녀자가 서로를 끌어안는,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다리였다. 그런데, 이전 구석당에서 보았던 나의 곁에 있는 노파가 굳은 입술을 떼며 속삭이듯 나지막히 웅얼거렸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낮선 억양의 투박한 주문이었다. 노래인 듯하기도 하고 그저 웅얼거림인 듯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의 귀에는 그 낮설지 않았다. 문현으로만 보았던 고려가요 구전 구절들이 살아서, 다시 내 앞에서 오래된 기억과 기억의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떠나는 이를 붙잡는 울음, 남은 자의 다짐, 그리고 반복되는 이별의 운명. 나는 속으로 곱씹었다. 이 섬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떠남과 남음을 이렇게 주문의 가락으로 이어온 것이구나. 이렇게 그 옛날의 노래가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는 호명과 응답의 반복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구나. 나는 급히 수첩을 꺼내어 펴다가 이내 접었다. 글자는 너무 차갑고 평면적이다. 더군다나 나의 지식은 너무나 짧다. 그러므로 감히 어설픈 글자로 이 오래된 울림을 담아낼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자칫 내가 잘못 적는 순간, 이 울림은 기록이라는 이름 아래 또 한 번 애꿎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제단 위에 피어오르는 향냄새는 질고 짹짹했다. 향내가 바람에 실려 오름 너머로 흘러갔다. 흐르는 향 연기를 따라 부녀자들의 치맛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며 불빛과 함께 흔들렸다.

제의가 끝날 즈음, 아직 채 피지 않은 동백꽃 사이로 해가 서서히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부녀자들의 치맛자락에 금빛 햇살이 배기 시작했다. 부녀자들의 눈가에 짙은 이슬방울들이 맺혔다. 침묵을 지키다 다시 터지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오름 전체로 번져갔다.

마을로 돌아와 제의 물품들을 정리하는데 안덕수 노인이 나에게로 다가왔다.

“오늘도 잘 지나가신게.”

“네, 어르신.”

“학생, 이제 어디로 갈 건가.”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서울로 돌아간다, 여기 며칠 더 있다. 어느 쪽도 정답 같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레 말했다.

“글을 쓰고자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말로만 쓰진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곳의 말로, 여기에 맞는 호흡으로 그렇게 쓰고 기록하고자 합니다.”

나의 말에 노인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학생도 하르방, 할망의 우리 마을 후손이우다. 어디 태어난 게 중요한 거 아니고, 피로, 역사로 이어진 이 섬 후손 아니우파. 시간 나민 정월 그믐날 한번 와보라게. 한 달 안에 골프장이든 바람개비든 결판날 거우다. 그때 동백꽃 참말로 이쁘주게. 유채꽃 만발할 때 와도 좋수다. 언제든 생각나민 와주게.”

노인의 말이 가슴에 새겨졌다. 오늘 내가 보고 들은 제의는 단순한 의

례가 아니었다. 오랜 역사의 공동체에 심장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심장의 박동을 그들과 함께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생각했다. 뿌리란 무엇인가. 후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생각했다. 뿌리는 우리 모두의 원형이요, 후손이란 혈통이면서 곧 역사의 기억과 이름을 이어가며 기록하는 자이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 한 번 더 구석물당을 찾았다. 바위 제단 둘레 나무들이 온통 형형색색이었다. 아마도 단체가 다녀간 듯했다. 아직 시퍼런 동백 이파리들이 형형색색의 메모지들을 눌러 붙들고 있었다.

-골프장 건설 결사반대한다!

-구석물당은 제주도의 역사이다.

-역사를 잊지 말자. 이름을 잊지 말자.

짧은 문장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북소리 같았다. 나는 그 소리 중에 몇 문장을 수첩에 옮겨 적었다. 그리고 나 역시 수첩 한 장을 떼어 내 생각과 바람을 적었다. 며칠 여에 걸쳐 내가 보고 들은 이 섬 공동체의 역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생각 몇 구절을 적었다. 그리고 나의 생각들을 예구부러진 동백나무 작은 가지에 걸어 놓고 상념에 잠겼다.

순간, 구석물당 주위에 온통 서늘한 기운이 감돌며 거센 바람과 함께 안개가 밀려들기 시작했다. 회색 안개는 점점 짙어져 마침내 검은 어둠

이 되어갔다. 어둠 속에서 횃불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횃불이 내 눈앞에 어둠을 걷어 올리고 있었다. 거센 바람을 헤치며 사람들이 섬의 북쪽에서 한라산을 타고 남쪽으로 넘어왔다.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로, 그리고 다시 섬 속의 섬으로 숨어드는 사람들이었다. 여몽연합군에게 쫓기는 삼별초와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최후의 항전지였던 섬 북부의 향파두리성이 함락당하고 쫓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과 슬픔이 얼룩져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저항의 힘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있었다.

사람들의 뒤를 따르던 젓먹이를 안은 한 여인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주문이었다. 떠나보냄으로써 살 수 있다는 아이러니였다. 그녀의 주문이자 가락은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칼날이었다. 성벽이 무너지고, 불길이 치솟는 순간에도 그 가락은 살아남았다.

그들은 한동안 섬의 남쪽에 머물렀다. 바다와 오름들이 동시에 보이는 곳이었다. 드넓은 야초지가 펼쳐진 평화로운 곳이자 요새인 곳이었다. 하지만 향파두리성을 장악한 여몽연합군이 섬의 동쪽과 서쪽을 초토화하면서 마지막 남은 남쪽으로 밀려왔다. 삼별초 병사들과 장인들이 먼 길을 떠날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불가피 떠날 수 없는 자들은 섬의 남쪽 오름들 속에 최대한 몸을 숨기었다. 제주를 떠난 이들이 해류를 타고 향한 곳은, 오래전 탐라국에서부터 바람길이 이어주던 섬, 바다 건너 남

쪽의 섬 오키나와였다

바다를 건너온 장인들이 작은 구릉지에 가마를 쌓았다. 그들은 제주에서 가져온 틀과 흙으로 자기를 빚고 기와를 다시 구웠다. 병사들과 장인들이 성벽을 쌓았다. 일본의 성벽 축조 방식과 전혀 다른, 구릉을 따라 이어지는 독특한 방식의 방어 기능을 갖춘 성벽이었다.

밤하늘 별빛 아래, 시뻘건 불길이 가마 속에서 붉게 일렁였다. 한 장인이 가마에 들어가기 전의 기와 뒷면에 조심스럽게 글씨를 새겼다.

-癸酉年高麗瓦匠造.(계유년에 고려 장인이 기와를 빚다)

이어서 그가 손끝 놀림을 마치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고려 장인에게 가마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 일본인 장인이 물었다.

“무슨 뜻이요?”

고려 장인이 대답했다.

“떠난 자들과 남은 자들의 노래이오. 우리가 어디 있든, 언젠가 반드시 이름과 이름이 만난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노래이오.”

시뻘건 불길이 튀어 오르며 기와들이 천천히 굳어갔다. 그 불길 속에서, 제주를 떠난 노래가 낮은 땅에서 여전히 타오르며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고려인들이 남쪽 바다로 배를 띄우고 수백 년이 흘렀다. 전형적인 일본의 성벽과 축조 방식이 다른 <00구스쿠(00グスク, 00城) 성벽 조사를 위한 한·일 합동조사단>이 설립되었다. 성벽을 조사하던 중, 인근 우라소

에서 성의 암벽을 파서 만든 ‘오키나와 류큐 왕국’ 초기 왕실 무덤 ‘우라소에 요도레(浦添ようどれ)’가 발견되었다. 왕릉 조사단 중에 유일한 한국인 연구자가 있었다. 우라소에 왕릉 바닥을 조심스레 살피던 그가 흙 속에 묻혀 있는 암키와 일부를 발견했다. 조심스레 붓으로 그것을 털어내던 그가 암키와에 희미하게 남아 있는 글씨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癸酉年高麗瓦匠造.

암키와에 적힌 계유년은 고려사에서 1273년이었다. 1273년은 공식적으로 제주도에서 삼별초가 여몽연합군에 진압된 해이다. 또 그는 부근에서 목조건축 지붕의 기왓골 끝에 사용되었던 기와인 연꽃무늬 수막새를 발견하였다. 고구려에서 고려로 이어진 연화문(蓮花文)이었다. 아홉 개의 잎이 있는 둥근 원형의 무늬. 한국 진도의 용장산성 기와 문양과 거의 유사한 것이었다. 이어 ‘연화문수막새’, ‘당초문암막새’와 같은 고려 청자의 조각들이 연이어 발견되었다.

일본 오키나와 왕실의 무덤 속에 수백여 년 묻혀 있던 이름이었다. 그런 오래된 역사에 이름을 위무하듯 조심스럽게 붓질을 하던 한국인 연구자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남은 자들, 떠난 자들, 그리고 잇는 자의 소리가 일본의 왕릉에서 하나로 겹쳐졌다. 그 소리는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에서, 오키나와로 씩 없이 계속 이어진 역사의 주문이요 호명이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내 앞에 펼쳐졌던 순간의 환영이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거센 바람 속에서 한라산을 넘어가던 여인의 한숨 섞인 가락이 오래도록 내 귀에 남았다. 구석물당 제단 앞에 섰다. 두 손을 모았다. 이 섬의 평화와 번영과 안녕을 기원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혼에 처음으로, 진실로 가까이 다가섰다.

\*

제주공항에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선배에게 전화가 왔다.

“오늘 서울 온다며? 언제 제주도? 할머니 고향에서 즐겁게 잘 보냈어?”

“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이 좀 무겁네요.”

“아니 왜?”

“글쎄 그게…이름들 때문이에요. 선배가 말한 ‘가시리’ 노래와 <가시리 마을>의 역사도 그렇고…어쨌든 시간 되면 정월 그믐에 맞춰 다시 제주도를 찾을 것 같습니다.”

탑승이 시작되었다. 줄이 움직이다가 멈췄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뒤를 돌아보았다. 낮익은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착각이었을지 모른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나는 눈을 감고 나지막이 이름을 불러보았다. 어떤 이름은 과거에서 오고, 어떤 이름은 미래에서 온다. 나의 부름에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그 대답 없음도 대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

이 대신 대답할 때도 있으니.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화면을 열었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편지, 잘 보았쎬. — 바람”

누구지? 발신자 정보가 없었다. 편지 잘 읽었다는 친근한 어투의 제주 방언이었다. 잠시 생각했다. 휴대폰 화면을 꺾다. 비행기가 이륙을 시작했다. 조그만 창문 아래로 바다 위 섬이 서서히 흐르며 조금씩 멀어졌다. 그러나 멀어지는 것은 단지 거리가 아니었다.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경계의 눈금 또한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과거의 눈금을 지우고, 새로 쓰기 시작했다.

서울에 살지만, 나의 뿌리는 전남 광주에 있다. 그래서인지 제주는 내게 낯선 섬이 아니다. 오래전 ‘다음 아고라’ 시절, ‘민중’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문학 동인이 있었다. 그는 제주 사람이었다. 서울에서 정모가 열릴 때면 굴 상자를 바리바리 싸 들고 비행기를 타고 왔다. 나에게 참 많은 문학적 질타를 해 준 선배이다. 그런데 그가,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를 찾아 처음 제주 땅을 밟았다. 바닷가 언덕에 그를 묻고 마주한 싹푸른 바다는 처연하게 아름다웠다.

나는 제주를 잘 모른다. 소설 속 사투리도 사실은 ‘제주 방언사전’을 더듬어 썼다. 그럼에도 저의 서툰 작품을 선택해주신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귀포의 가시리 마을과 구석물당을 배경으로 “요 집도 식계, 저 집도 식계, 문식계집인계.”(이 집도 제사, 저 집도 제사, 모두 제삿집이네)라는 ‘식곶집’ 이야기를 썼다. 그리고 확장하여 쓴 제주 이야기, 특히 서귀포 지역의 신화와 전설이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문학적 상상은 아직 더 확인해야 할 과제이다.

이번 소설을 쓰며 생각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제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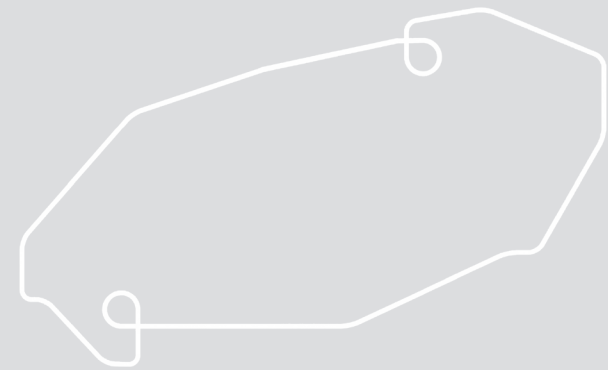
야기' 를 쓰게 될 것이다.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어가며 '흐르는 섬', '섬 속의 섬'에 대해 더 쓰게 될 것이며, 써 보고 싶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는, 그리고 '광주'는 나에게 여전히 써야 할 이야기의 원천이다. 부족한 글을 따뜻하게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제주와 4·3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고, 늦깎이의 석사·박사 논문을 지도해주신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홍기돈 교수님께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 詩

당선작 / 희구 [希求]\_이경옥

심사위원 : 김원욱, 문태준



제9회 서귀포 문학작품 전국공모  
시 부문 심사평

제9회 서귀포 문학작품 전국공모 시 부문에는 총 605편의 시편들이 응모를 해 성황을 이뤘다. 이러한 활기는 전통적인 장르인 시에 대한 관심을 증빙한 것이라고 하겠다. 평이한 수준의 작품도 없지는 않았지만, 시편마다 개성적인 음성이 가득 실려 있었다. 특히 서귀포 지역 천혜의 자연 환경과 생활, 풍습 등을 다룬 작품들이 많아 서귀포에 관한 문학적 재발견이라 평가할 만했다.

심사위원들은 수일한 작품이라고 판단한 시편을 각각 추천했고, 토론과 고심 끝에 시 ‘희구(希求)’를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 시는 물영아리를 찾아간 경험을 아주 서정적인 어조로 노래한다. 시적 화자는 ‘너’와 함께 물영아리에 가는데 ‘너’는 물영아리를 물항아리라고 발음한다. ‘너’가 물항아리라고 이름하는 이 시적 모티프는 시종 시 전반에 걸쳐 작용한다. 물영아리든 물항아리든 어떤 잔잔하게 물이 권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고, 그 괴어 있는 공간은 싱잉볼이라는 악기의 원형적(圓形的)인 공명에 빗대어 연결되고, 시적 화자와 ‘너’와의

오랜 인연과 정감의 교류로 이어지고, 결국 물과 산을 함께 품고 있는 물영아리의 지리적 특성에 귀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부드러운 사유와 느낌이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이 시를 수상작으로 결정하게 된 연유에는 함께 응모한 작품들을 함께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제주도 일원의 전통 무속 의례인 굿의 장대한 서사를 풀어낸 시 '제주 큰굿'에서 보여주는 시적 역량에도 두터운 신뢰를 갖게 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서귀포를 노래한 신작시의 탄생을 우리가 고대하는 까닭은 한 편의 시가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사유를 통해 그 시적 대상을, 서귀포를 빼어나게 재해석한다는 점에 있다. 서귀포 문학작품 전국공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더 많은 분들의 응모가 있기를 바란다. 수상하신 분께는 축하의 인사를, 응모하신 모든 분들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심사위원 : 김원옥, 문태준

| 시 부문 당선작 |

## 희구 [希求]



이경옥

- 약력-2020년 『시와소금』신인상 등단
- 시집으로 『혼자인데 왜, 가득하지』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 제7회 마포 문학상 수상

## 희구[希求]

이경옥

물영아리\*를 걸으며  
너는 자꾸 물항아리라고 말했어

털팽나무 붉은 열매  
가넷 반지처럼 검지에 올리며  
네가 찰박거리는 물장구 소리로  
옛날을 데려오고

살면서 까끌거리는 날 많아  
하루에도 몇 번씩 목덜미를 뒤집어  
머리카락 찾아내는 일 많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잔잔하다고 말했지  
수망리에서 정말 다 괜찮아졌다니까

마치 커다란 싱잉볼 안에 들어온 것 같았어

물영아리 잣성을 따라 걷다보면  
물과 영아리가 너이고 나였으면 좋겠는데  
신령한 산에 접두어로 앉은 게  
나일까 너일까

영아리 물영아리 자꾸만 입속에서 굴리다 보면  
단물 마신 것처럼 입안에 단내가 퍼지고  
신령한 산엔 물, 물 곁에 신령한 산

그래, 아무렴 어떠리  
예순에도 우린 제주 삼다수를 마실거고  
삼나무숲을 좋아할거야

그럼 그럼 일흔에도 여기 물영아리 오름에서  
조금은 새는 발음으로 물향아리라고 말하렴

너는 물향아리에서 나는 물영아리에서  
물방울 몇 개를 골라 저글링을 하자꾸나

백발 산신령께서 물방울을 엮어  
우리의 목에 걸어 줄 때까지

\* 물영아리(水靈山)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화구호를 가진 오름이다. 영아리는 신령스런 산이란 뜻이다. 앞에 '물' 이란 접두어가 붙은 것은 분화구에 물이 고인 습지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의 바람은 언제나 시의 첫 행처럼 다가옵니다. 그 바람 속에는 파도의 숨결과 오름의 그림자, 굴뚝 향기와 돌담의 오래된 숨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물영아리오름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의 웃음을 시로 읊기려 애쓴 시간이 이렇게 '서귀포 문학상' 으로 귀결되어 기쁩니다.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나' 를 찾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맞벌이로 정신없는 마흔 살을 살아내고 소진된 몸과 마음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에 '시' 가 내게로 왔습니다.

어제 속으로 흠어진 얼굴들, 다정했던 시간, 그리움과 침묵의 자리를 메우려는 마음을 읊겨 적으며 잃었던 생기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너무 투명하고, 또 너무 어두워 단어 하나 적는 일이 두려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주도의 비자림과 바다가 생각났습니다. 섬에 대한 동경, 제주도는 물에 사는 이들에겐 동경의 땅입니다.

가끔 짬을 내 제주도 올레길을 발바닥 물집이 잡히도록 걷기도

했습니다. 건다 보면 화산석 돌담 옆에 “누구신디 맛허게 먹어사.”라는 갈겨 쓴 글씨와 함께 담겨 있는 굴 상자에 마음이 흥건히 차올랐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 다시 살아내는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당선 소식을 받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너무 바라던 일인데 믿기지 않아 기쁨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시를 읽고 선택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상은 제게 “계속 써도 된다.”라는 토닥임입니다.

시를 통해 조금 더 깊이 듣고, 조금 더 낮은 자리를 바라보며 시가 삶이 되는, 삶이 시가 되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시’를 쓰는 일은 혼자만의 시간이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걸 깊이 새기겠습니다.

서쪽 바닷길로 돌아오는 배들이 정박하는 곳, 서귀포라는 땅이 내게 준 맑은 울림을 오래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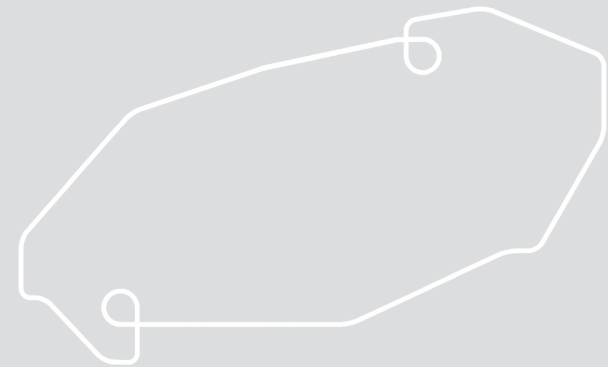
축하 인사에 며칠을 구름 위에서 걸어 다녔습니다. 두 분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부모님, 묵묵히 응원해 준 남편과 딸들, 물영아리 축제에 초대해 준 김선화 시인님, 여행에 동행해 준 친구 미숙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축하를 아끼지 않고 넘치게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兒童文學

## 아동문학

당선작 / 산방산\_최진

심사위원 : 장승련, 노수미



제9회 서귀포 문학작품 전국공모  
아동문학 부문 심사평

이번 서귀포 문학 작품 공모, 아동문학 분야에는 동시 120편, 동화 29편이 응모하였다. 아름다운 서귀포와 관련된 주제와 소재로 한 문학 작품 쓰기에 대한 열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동시와 동화를 아울러 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해야 하는 일은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그도 그럴 것이, 동시·동화는 같은 아동문학이지만 장르적 성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두 심사 위원은 각자 동시와 동화를 읽고 각 분야에서 2편을 최종심에 올려 장르 구분 없이 보다 뛰어난 작품을 당선작으로 올리자고 합의하였다.

동시 분야를 보면 응모 편수도 많았고 몇 개의 작품을 빼면 일정 수준 높은 작품이 여럿, 눈에 띄었다. 그러나 소재 및 주제인 서귀포의 자연, 역사, 문화, 생활, 사람, 전설, 신화에서 벗어난 작품들이 있어 제외되었고 시의 이미지나 메시지가 불분명한 시들을 뺀 나머지 작품 중에서 시 두 편을 최종심에 올렸다. <푸른바다거북의 꿈>의 4편과 <산방산>의 4편이다. <푸른바다거북의 꿈>은 바다 환경의 심각성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4편도 질적으로 고른 점을 높이 샀다. 그러나 절제미와 압축미가 아쉬웠다. 반면 <산방산>의 4편은 함께 써낸 4편은 그런대

로 무난한 편이지만 특히 <산방산>은 시적인 발상과 압축미가 높이 살 만했고, 이미지와 메시지가 분명해서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동화 부문은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이 올라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제와 소재를 벗어난 작품들이 더러 있어 안타까웠고, 신화를 재현하거나 그대로 옮겨쓰고 있고, 전래동화의 모티브를 따 와 각색한 작품, 산만한 전개로 주제 의식을 알 수 없는 작품들도 더러 있었다. 또한 관련 장소의 홍보 글이거나 블로거의 글을 모방한 듯한 글, 심지어 AI가 써 준 듯한 작품들도 있어 눈에 거슬렸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그 겨울의 노인성>과 <응상백과 소년 말테우리>였다. <그 겨울의 노인성>은 할아버지와 의 별 보기를 잔잔한 필체로 전개해 가고 있으나 개연성이나 설득력이 좀 아쉬웠고 <응상백과 소년 말테우리>는 구조가 촘촘하고 내용이 흥미로워 유연한 전개가 돋보였으나 소년이 거짓말해야 했던 이유가 얼른 와닿지 않아 다소 어색하였다.

동화와 동시를 아우르는 아동문학 부문에서는 동시 <산방산>을 당선작으로 올려놓기로 두 심사 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심사위원 : 장승연, 노수미

| 아동문학 부문 당선작 |

## 산방산



최진

- 2005년 <아동문학평론> 신인상(동시), 2008년 새벗문학상(동시)
- 2011년 한국동시문학회<올해의 좋은 동시집>
- 2012년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우수작품상<하늘 고치는 할아버지>
- 2013년 영남아동문학상, 2020년 서울지하철 공모 당선
- 2024년 <아름다운 글 문학상>, 2025년 <김동국 문학상> 수상
- 동시집 『선생님은 꿀밤나무』, 『빗방울의 말』, 『칭찬해 주세요』

## 산방산

최진

제주도 산방산은  
압정입니다

바람 많은 제주도  
날아갈까 봐

출렁출렁 파도에  
떠내려갈까 봐

꾸우욱! 눌러놓은  
압정입니다

제9회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에서 당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고 추억이 많은 제주도인데,  
그 제주도에서 수상하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자, 기쁨이며,

저의 창작에 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번 수상을 기회로 가족과 함께 다시 제주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또 한 번의 좋은 추억을 쌓고 가게 되어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모를 준비하며, 저는 서귀포의 자연과 사람,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바라보고 관찰하며 공부하여 시로 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연과 삶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시적 언어로 담아내는 과정이 제겐 배움과 즐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물의 흐름 속에서도

시는 태어나고, 독자와 마음을 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과 마음을 시로 담아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시를 쓰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작품을 읽고 심사해 주신 모든 분  
들과  
저를 당선시키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늘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겸손하게, 진심을 다해  
삶과 자연 속에서 느낀 이야기를 시로 이어가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9회 서귀포 문학작품 전국공모

## 수상작모음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서귀포지회  
발행인 안정업  
전화 064)739-3287  
이메일 sgpart@hanmail.net  
인쇄 도서출판 오디콤  
ISBN 978-89-6980-010-7  
〈비매품〉

본 모음집은 서귀포문학작품전국공모전 보조사업비로 제작되었습니다.